

요한 1서 묵상 23  
(9/25/2020, 금)

찬양: 365(484)(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서 5:14-15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 14 절 -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두려움이 없는 태도’ 혹은 ‘기탄없이 말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은 성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아울러 이 때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담대함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요한이 강조한 하나님과의 사귀의 표현이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는 담대함으로 기도한다고 말한 요한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뜻을 추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근본적 관심과 목적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되고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인간적인 고민, 고통,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 6:31-33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기도의 우선 순위와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며 고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삶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목상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삶은 신앙과 기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고, 삶을 영위하는 일종의 방편으로만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참된 성도로서의 삶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사귀의 대표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15 절 -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심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뜻을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기도생활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예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개혁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